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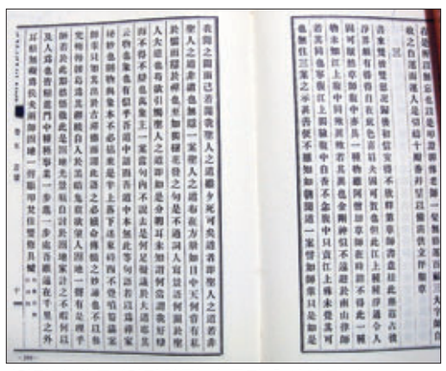
"어찌 유가에 '私' 있고 선가에 '隱' 있겠소"

추사는 강상(江上)과 복중(腹中)의 오탁 문제에 이어 무은(無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보기 드문 장문의 편지이다. 지난 호에 이어 〈완당전집〉〈여초의〉3신과 〈완당척록〉에 수록된 추사 편지의 후반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은(無隱)이란 공안은 성인의 도가 방책에 널려 있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유가(儒家)에서 사(私)가 있고 선가(禪家)에 은(隱)이 있겠습니까.

'홀로 선 나무에 꽃이 피다(獨樹花發)' 란 시인이 경치를 그린 말에 불과한 것이니 성인의 대도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성인의 도를 끌어오고자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내가 말을 잘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만상주일(萬象主一)"의 공안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대도와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물(物)은 상(象)이라 하였으니 (내가 말한 우리의)도와 비슷함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의 도는 본래 이런 구절이나 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가의 은미하고 오묘한 것이라 여긴다면 물과 상은 반드시 뽑아 올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은 올라가고 반을 떨어지며, 동은 희미하고 서는 막힌 것이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대들은 다만 옛 선덕에게서 나온 줄로만 알고서 이 말이 명을 잇고 골수를 전하는 묘제라고 말하며, 참구하여 규명 하지 않아서 차츰 얽혀져 뒤엉켜서 스스로 어두운 귀신의 굴에 들어가도 사람에게 대오의 일성을 바라니 이


〈완당전집〉중 〈완당척록〉 수록된 추사의 편지

추사, '무은'으로 경지 드러내
초의, 추사의 '대오일성' 염원

런 이치가 있습니까. 그대가 만약 이에서 활연히 깨친다면 이것은 대오에 빛의 그림자이니 모름지기 스스로 대오의 제 집 찾을 계획을 토론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남에게 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멀리 천리 밖에 있다지만 귀는 막히지 않았으니 두 스님들의 대오 일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맑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물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선사에 대한 답을 겸해 보냅니다.

(無隱一案 聖人之道 布在方冊 如日中天 何嘗有私於儒而隱於禪也 至如獨樹花發之句 是不過詞人寫景語 何關於聖人大道也 苟欲引觸聖人之道 卽如是分明已 未知謂何當謂我好辯而不得不辯也 萬象主一案 當句內不說 去是何足擬議於大道耶 其云物也象也 有似乎吾道中語 而吾道中 本無此等句語 若以爲禪家秘妙也則 物與象 本不必拈來 是半上洛下 迷東碍西 不覺噴筍滿案 師輩只知其出於古禪德而謂此語之必續命傳髓之妙諦也 不以參究 轉轉膠葛 爲其纏繞自入於黑暗鬼窟 欲望人囚地一聲 有是理乎 師若於此 豁然悟徹 此是囚地光景 須自討於囚地 家計之不暇 何以及人爲也 皆精進門中 種種事業 一步進 一步處 吾雖遠在千里之外 耳根無碍 爲俟夫兩師囚地一聲 順叩梵佳 雙修具椷 右兼答無住禪師)

추사가 말한 무은(無隱)이란 공안 중, 은(隱)에 대한 전고(銓考)는 〈중용〉의 "군자의 도(道)는 명백하게 드러나 알기 쉬운 듯하면서도 (그 가운데) 은미하게 숨겨져 있다(君子之道 費而隱)"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니 무은(無隱)이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가 "성인의 도가 방책(方冊:성인의 글)에 널려 있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바로 무은((無隱))을 말한다. 추사가 "만상주일(萬象主一)"의 공안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대도와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 점에 대해 초의는 〈답쌍수도인〉에서 이 점을 공감을 하면서도 추사의 대오일성(大悟一聲: 크게 깨달음)을 염원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시련이야말로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툼이 생겨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슬픔과 불안, 두려움, 분노로 마음이 괴로울 때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192쪽 | 13,000원

미국불교 5대 지도자 중 한 명인 잭 콘필드 박사의 8가지 명상

대지는 나의 목격자 ● 연민 나누기 ● 시련 속의 붓다 ● 용서의 실천
● 치유의 사원 ● 아픈 마음의 선(禪) ● 평온과 평화 ● 최선의 의지

특히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이다.
– 존 카밧진, 추천사 중에서

마음을 꿰뚫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가르침은 모든 위대한 스승의 특징이다.
잭 콘필드는 내적 평화와 치유를 위한 부드럽지만 매우 강력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며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한 이 책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 릭 핸슨, 『붓다 브레인』의 저자

이 작고 아름다운 책은 보석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당신의 본질인 영혼과 사랑, 지혜를 다시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 타라 브랙, 『받아들임』의 저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물이 아래로 흐르듯 포교도 하심 갖고 해야"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

조계종이 진행하는 행사에 가면 빠지지 않고 보이는 갈색 옷을 입은 법사들이 있다. 행사 안내, 주변 정리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들은 바로 조계종 포교사들. 포교사들은 평소 사회 각계에서 포교 일선의 전법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25회 포교대상 시상식에는 유례없이 포교사들이 대거 모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바로 1기 포교사로서 포교사단 안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이 포교대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임 단장의 수상은 재가자로서는 최초였다.

"이 상은 1만 포교사들을 대신해 제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포교가 아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로 보이는 것이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여생 동안 묵묵히 포교일선에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임희웅 단장의 수상소감은 공연장을 가득 메운 포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밝게 웃는 그들이지만 이날 그들의 표정은 유난히 환희심에 차 있어 보였다.

대상을 받은 직후 임희웅 단장(81)은 인터뷰를 만류했다. 불제자로서 포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그의 포교 여정에 대해 알고 싶었다. 직접 포교사단 사무실을 찾아 10월 29일 그의 포교 원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열혈 청년이 진성불자가 되기까지

사실 임 단장은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일명 진성불자'로 불리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불자기 아니었다.

1933년 태어난 그는 1953년 한국전쟁 직전 해병대에 들어간 열혈 청년이었다. 해병소위로 제대 후 쌍용그룹의 모태인 쌍용양회에서 근무하던 그를 불자의 길로 인도한 것은 그의 아내였다.

"1975년 김성곤 회장이 별세하며 퇴직 후 다양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독실한 불자였던 아내가 절에 다니기를 권유했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다. 임 단장은 "처음에 불교에 빠진 것은 기복적인 부분이 컸다. 사업이 잘되라고 기도만 하던 나에게 변화가 온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 였다"고 털어놨다.

다니던 사찰의 스님이 건네 준 경전을 접하면서부터였다.

"집에서 가까운 관계로 동작구 현충원에 위치한 지장사에 다녔어요. 지장사에는 도선사 혜성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수능엄경〉을 읽어보라며 주셨어요. 〈수능엄경〉을 읽으며 '아! 불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했습니다. 불교교리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차 커졌어요."

〈수능엄경〉은 부처님이 보살들이 닦는 수행법을 말씀한 경전이다. 임 단장은 1979년 2월 조계사에서 무진장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임 단장이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였다.

"조계사에도 다녔는데, 하루는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여 가게 됐습니다. 바로 동산불교대학이었어요. 바로 입학원서를 쓰고 4기로 입학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 할 때 즈음인 1995년 조계종에서 제1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어요. 조계종 포교사가 된 계기였습니다."

당시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무진장 스님이 직접 재가불자들을 교육했다.

"당시에는 특별한 원력,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무진장 스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님은 모든 문제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임 단장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특히 사회에서 '문제'로 낙인찍힌 재소자들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임 단장이 포교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포교활동은 교정교화가 됐다.

"처음 포교사가 돼서 수원 교도소에 갔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교정교화의 개념조차 미약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재소자들이 마음이 편해진다며 좋아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내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일찍 접했으면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이후 임 단장은 지속적으로 교정교화 활동을 펼쳐왔다.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서울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서 상담과 정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해부터 속초 원각사 강릉불교대학과 강릉 관음사 강릉불교대학에서 강사로서 이러한 포교사들의 활동이 중요함을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포교사단 출범에 일조, 6대 · 7대 단장 역임

임 단장과 같이 포교사들의 열정어린 활동에도 포교현장은 열악하기만 했다. 활동에 대한 매뉴얼도 시스템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포교사들의 개별적 활동을 한데로 묶을 조직이 없었던 것이었다. 네트워크가 되지 않다보니 애써 구성한 포교현장이 포교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교활동을 못하는 경우 무산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포교사들은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1998년 포교사 지역별 워크숍을 실시했다. 어떻게 효율적, 조직을 이끌고 포교 트렌드를 이끄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군 · 교도소 · 어린이 · 청소년 등 각 분야의 포교사들이 포교 팀을 꾸리기로 결의했다. 또 이들을 총괄하는 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00년 3월 12일 전국의 포교사 2000여 명이 조계사에 모였다. 포교사단이 정식 출범한 것이다. 임 단장은 당시 운영위원으로 통일분과위원회를 맡게 됐다.

50대 접어들며 불교에 빠져
무진장 스님 · 아내 영향 포교 매진
교정교화 · 군포교 20년 정진
6 · 7대 사단장 맡으며 조직화 이끌어
여생 백의종군 마음으로 포교 계획

통일분과위원회는 남북 불교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 종교편향 바로잡기 등을 이끌었다.

군 생활을 오래한 임 단장은 또 군포교 팀을 끌었다. 임 단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파주 101여단 호국백일사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제9보병사단 호국설악사에서 법회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호국설악사에서 였어요. 지금이야 군부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지만 당시에는 종교시설에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공사현장에서 판넬이나 카펫 등을 주워서 깨끗하게 닦아서 법당을 만들었죠.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없어서 기름을 들통에 사서 직접 날라 불을 피워가면서 법회를 했죠. 군법당에 가는 중에 많이 온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정말 위험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회를 하지 않으면 힘든 군생활 중에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법당을 찾는 장병들은 누가 보살핍니까(웃음)"

임 단장은 "처음에는 법당에 4~6명이 오다가 점차 늘어 60명가량이 법당을 찾고 있다"며 "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볼 때 포교사가 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법당이 없는 때는 교회를 빌려서라도 법회를 보곤 했다.

파주 호국백일사에서는 이웃종교의 시샘을 종교화합으로 승화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국백일사 창건 직후 군법당 건립이 불법이며 불사금은 뇌물이라는 개신교 부하장교의 무고로 당시 여단장인 김태복 장군이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법사가 없는 조그만 여단법당의 위기에 포교사단 군포교팀들이 나섰다. 매주 꾸준한 포교사들의 법회에 70명가량이던 법당을 찾는 군장병들이 350명으로 늘기도 했다. 이들은 성탄절을 맞아 호국백일사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다.

파주 호국백일사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임단장.

파주 호국 설악사에서도 군장병을 위해 법회를 열고 있다.